



KTF, 이경준 신임사장 체제 돌입



KTF가 이용경 전 사장이 KT사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이경준 KT 기획조정실장(전무)을 신임사장으로 영입했다. 이경준 신임사장은 KT와 KTF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유무선 통신 전문가로 이 신임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KT그룹의 유무선 통합 전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KTF와 KT아이컴의 통합작업이 당면과제로 떠오른 만큼 양사의 합병이 이 신임사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양사 주주와 사원이 통합을 바란다면 할 것이다"며 "지금은 주가가

합병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바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준 신임사장은 전북 김제출신으로 78년 기술고시에 합격, 체신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84년에 KT 장거리전신전화건설국 기계과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97년 네트워크본부 시설운용실장을 거쳐 98년 KTF 기술부문장을 지냈고 IMT-2000 기획단장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이 사장은 KT 수도권 서부본부장을 거쳐 지난 2월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됐다.

한편, KTF는 이 사장의 취임에 앞서 조직규모 확대에 따른 효율적 경영활동을 위해 부사장직을 신설, 경영지원총괄 김우식 전무를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코리아닷컴 신임사장에 손주원씨 내정



멀티미디어 포털업체인 코리아닷컴은 김용희 전 사장이 실적부진을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알리바바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주원 사장을 신임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손주원 신임사장 내정자는 글로벌 e커머스 사이트인 알리바바코리아를 성공적인 B2B 사업모델로 정착시킨 인물로 뛰어난 인터넷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리아닷컴은 손 사장의 국제적인 비즈니스 경험과 리더십이 급변하는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활성화와 수익중심의 경영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사장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성장기로 접어들어 코리아닷컴의 향후 전망은 매우 밝다"며 "앞으로 고부가가치의 콘텐츠 및 커머스 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닷컴은 이달중 이사회와 임시 주총을 거쳐 신임사장에 대한 인준과 선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손 사장은 성공관대를 졸업하고 쌍용 광저우(廣州) 지사장을 거쳐 알리바바코리아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더존디지털웨어 신임사장에 김재민씨

더존디지털웨어가 김재민 전 한 국유니시스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김재민 신임 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유니시스 등의 CEO를 역임한 인물로 이달 14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출범할 더존디지털웨어와 뉴소프트기술의 합병법인을 이끌 새로운 대

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동안 더존디지털웨어를 이끌었던 김택진 사장은 김 신임사장에게 경영전권을 넘기고 등재이사 겸 대주주로서 신규사업 등 전략적 의사결정사항에만 참여하게 되며 뉴소프트기술의 김정훈 사장은 기술부문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존디지털웨어는 뉴소프트기술과의 합병을 통해 매출규모 400억원대의 대형 솔루션기업으로 재탄생할 예정으로 이번 김 신임사장의 영입으로 향후 경영정보시스템과 ERP 등 분야에서 더욱 공격적인 경영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신임사장은 "더존디지털웨어는 MS 사장시절 MS 파트너 사여서 잘 알고 있는 우량기업"이라며 "글로벌 회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등 해외시장 개척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웹 신임사장에 박태민 부장 승진 임명

XML 솔루션 전문업체인 디지웹테크놀러지는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박태민 부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회사 창업멤버로 기술연구소를 맡아 XML 기반 전자상거래 솔루션 개발 등을 주도해 온 박 신임사장은 현재 국제기술표준화기구인 ISO내 XTM(XML Topic Maps) 분과위원회에서 기술표준위원으로 활동중인 XML 및 객체기술 전문가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신임 대표이사에 황규환씨 영입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대표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신임 대표이사에 황규환 경인방송 회장을 영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이사로 추천된 황규환 회장은 고려대 행정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인물로 67년 KBS에 입사해 사회부장, 해설위원, 기획조정실장, 라디오 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98에서 2001년까지는 아리랑TV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경인방송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오는 이달 11일 열릴 임시주주 총회에서 황규환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아이콜스, 이재덕 前사장 재선임

자동차 전문 SI업체 아이콜스가 이재덕 전(前) 사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재덕 신임사장은 아이콜스의 모태였던 한라 그룹의 자회사 한라정보통신 시절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때문에 아이콜스측은 당시 분사를 진두지휘하면서 보여준 이 사장의 능력이 다시한번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신임사장은 "아이콜스는 이름만 바뀌었지 조직문화는 그대로"라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콜스의 핵심 경쟁력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는 사업방향을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제조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건설업종 ERP 템플릿, KT 비즈메카 공급망관리(SCM) 사업 등에 역점을 뒀 오는 2005년까지 5대 SI업체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빛네트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 종합 SI업체 지향

사이버교육 전문업체인 한빛네트가 전문경영인 출신인 임진모씨를 대표이사로 영입, 종합 SI업체로의 변신을 노리고 있다.

임진모 신임사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국비즈니스 컨설팅 SI영업 총괄 전무이사, 대동에스아이의 SI영업 총괄 전무이사 등 SI영업만 22년간 해온 영업 전문가이다. 임 사장은 "교육도 일종의 SI 성격을 갖고 있어, 그동안 쌓아온 SI 영업의 노하우를 접목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빛네트가 규모나 내실 면에서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일한 전 사장은 한빛네트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영고문을 맡게 된다.



네오텔레콤, 부사장에 임용범씨 선임

통신장비 업체인 네오텔레콤이 임용범 전 EC텔레콤 부사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네오텔레콤은 임 부사장 영입과 더불어 내부업무 및 각 사업부 마케팅을 부사장이 총괄토록 업무를 개편, 기존의 중계기 사업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사업, 위치 기반서비스(LBS)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네오텔레콤은 국가안전면허 채점기 인증기술을 기반으로 기지국 원격감시장치, 텔레캅, DVR, 중계기 등 네트워크 장비위주의 오프라인 사업에서 온라인 사업인 LBS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인 사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 김원식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벤처육성단장 송석운

IT인력개발단장 김영신

콘텐츠사업단장 허문행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호교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서기관 김형영

KT

기획조정실장 전무 송영한

인력관리실장 상무 박균철

법인영업단장 상무보 전병섭

민영화추진단장 상무보 서정수

글로벌사업단장 상무 홍원표

인재개발원장 상무보 김기열

홍보실 공보팀장 이길주

정보시스템본부 부산전산국장 이길영

KT아이컴

전무 경영기획부문장 허인무

KTF

전무 신사업총괄 송주영

상무 기획조정실장 표현영

상무 홍보실장 신현철

상무보 네트워크연구소장 박봉근

상무보 인사담당 이광수

상무보 차세대사업담당 한훈

파워콤

기간방건설팀장 김응우

HFC건설팀장 김태균

회선망운영팀장 김진섭

한국증권전산

전산기술연구소장 최영화

매매시스템사업팀장 이봉근